

# 복잡한 기업 자금관리를 위한 통합솔루션 II



금융거래내역을 내부시스템과 연계할 수 없을까?



계좌를 통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은 내부 회계시스템 등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금융데이터와 내부시스템 간에 서로 데이터를 호환할 수 없는 등 데이터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는다. 자금관리서비스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금융데이터를 상호 연동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의 자금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작는데 영업, 금융, 자금, 회계를 한번에 처리할 수 없을까?



작은 기업에서는 보통 영업, 금융, 자금, 회계 업무를 1명의 실무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단계마다 매번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기업자금관리 서비스는 한 번 작성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 처리하여 [영업]증빙>결제>전표의 경리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견적서를 한번만 작성해 놓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불러와 매출전표를 만들고, 다시 그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다시 그 내역을 기반으로 대금을 수납하고, 자동으로 출금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일일자금현황'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보고서를 간단히 작성할 수 없을까?



기업자금관리 서비스에서 사용한 데이터(수입지출계획, 금융기관별 입출금내역 및 잔액 등)를 토대로 다양한 자금 관련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일정 기간동안의 자금흐름을 거래처별/부서별/용도별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현금흐름 및 미래 중장기 자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거래처에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세금계산서는 작성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보내는 것도 꽤나 번거로운 일이다. 기업은행의 기업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금계산서를 아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하고 SMS로 발송 사실을 안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종이 세금계산서를 출력하고 우체국에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회사의 자금현황을 외부에서 볼 수 없을까?



자금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통해 회사의 자금 현황을 실시간에 조회할 수 있다. 영업 활동이 바쁜 기업일 수록 자금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데 기업은행의 모바일자금관리서비스 'CEO Phone'을 이용하면 회사 전체의 잔액 및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자금지출을 결재하여 회사의 모든 자금현황을 원격지에서 실시간에 관리 가능하다.

##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관리서비스



e-branch

기업안의 맞춤형 온라인 은행지점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금관리 요구사항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견/대기업을 위한 종합자금관리 상품입니다.



CashONE Lite

기업의 영업/생산 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는 물론 당행의 기업 인터넷뱅킹과 연계해 금융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업의 영업/자금업무와 은행의 금융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업 업무통합 자금관리서비스입니다.

자료제공 : 기업은행 종합CMS팀 박덕환 차장